

學生指導의 機構 · 組織

金 井 厚

(江原大 法學科)

I. 學生指導의 當面課題

언제부터인지 大學에 있어서 學生指導라면 학생들의 시위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대학의 目的과 機能上 교수의 학생지도는 먼저 학생들의 研究·學習活動의 지도이어야 하고 나아가 學校生活·課外活動 및 졸업 후의 進路指導에 미쳐야 할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받아야 할 學生이나 一般市民 심지어는 학생을 지도하는 敎授에 이르기까지 學生指導를 시위방지로 받아들일 만큼 韓國의 大學은 學生示威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해방 이후 40년 동안 학생시위가 없었던 해가 거의 없고 近年에는 대다수의 大學에서 그리고 몇몇 대학에서는 한 해에도 수십 차례씩 학생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시위의 양상도 시가지로 진출하여 폭력화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學生示威의 와중에서는 대학이 그 機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따라서 研究와 學習의 指導 등 본래의 의미의 學生指導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우선 大學의 正常化를 위하여서도 시위방지를 학생지도의 一次的 課題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학에 있어서 學生指導가 시위방지에 그칠 수는 없고 그때 그때의 시위방지만으로 부

리 깊게 이어져 오는 韓國의 大學風土가 가까운 장래에 변화될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대학의 正常化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未來社會를 이끌어 갈 대학의 役割을 충실히 국력을 기울여 대학의 研究와 敎育의 力量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데서 大學問題의 해결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敎授의 學生指導에 있어서도 비록 大學이 소란해지는 경우에도 시위 가담학생의 지도에 못지 않게 一般學生의 學問指導와 生活指導에 전력을 기울이는 일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학생시위문제만 하더라도 시위는 학생들의 不滿의 表示이니 만큼 평소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도하고 적어도 과격한 시위의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생문제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실시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不滿의 原因과 示威의 동기 그리고 주장들 중에는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大學 自體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크고 어려운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어서 大學行政과 敎授의 指導만으로는 단기간내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데 학생지도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중 상당한 부분은 학생들에게 사물을 평가하는 가치관

과 문제해결방법 및 행동양식을 지도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진정 어려운 과제는 대학만이 아니라 國家와 社會의 각계 각층이 공동협력하여 하나 하나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大學社會의 숙원이었던 대학의 自律化문제나 學生自治活動 문제도 이러한 공동 노력의 기반 위에서만 본래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대학의 學生指導體制도 새로운 大學像에 비추어 再檢討되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

II. 學生處의 職務와 機能

모든 대학에서 學生指導를 총괄하고 학생에 관한 行政을 담당하는 機構로서 學生處(國立單科大學의 경우에는 學生課)를 두고 있고 處長과 副處長은 교수로써 보하고 있다. 학생처에는 다시 學生指導와 學生賞罰의 업무를 분장하는 學生課, 학생의 厚生福祉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厚生課 및 獎學과 就業의 업무를 담당하는 獎學擔當官室의 세 기관을 두고 있다. 그리고 綜合大學校내의 각 단과대학에는 學生課를 두고 소속대학 교수로써 課長(서울大學校의 경우에는 學生擔當學長補)을 보하여 소속대학의 학생에 대한 이상의 學生處業務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學生處는 대학의 行政機構로서 직접 개별학생을 지도하기보다는 대학의 학생지도에 관한 基本方向과 對策을 수립하고 學生自治機構를 지도·지원하며 學生厚生福祉施設과 獎學財團을 관리하는 일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대학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것은 敎授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학생을 指導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것이 학생처의 업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지도를 위한 각종 委員會를 운영하고 學生鍊修·學生兵事事務·體育行事·海外留學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학생처의 學生指導機能上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學生問題를 깊이 研究·分析하여 근본적인 指導對策을 강구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학생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

하기보다는 그때 그때 학생소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는 短期的 對應策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그동안 빈번한 학생시위와 이에 대한 強硬對策의 악순환 속에서 경찰력이 학원에 들어 오고 일단 시위가 일어났을 때에는 學生處가 주축이 되어 시위학생을 즉각 해산시키고 가담자를 處罰해 왔기 때문에 학생처에 대한 학생들의 認識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自律化施策 이후에도 학생들의 自治의 活動에 대한 학생처의 지도를 학생들을 위한 助言과 支援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監視·監督 및 沮止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다.

세째, 學生活動指導機能과 더불어 學生處의 주된 기능인 學生福祉·獎學·就業指導의 기능은 大學生數의 급격한 증대와 이에 따르지 못하는 福祉施設·獎學基金·就業機會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大學自律化政策의 정착·발전을 위하여 신중히 再檢討되고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III. 指導敎授制度

指導敎授制은 학생지도를 위한 별도의 機構는 아니지만 현재 대학의 學生指導體制上 核心을 형성하고 있는 制度이다. 모든 대학은 學生들의 生活를 건전하게 지도하기 위한 목적하에 學則上의 규정에 따라 學科中心으로 分擔指導敎授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은 學科別로 그리고 年別로 소속학과의 교수에게 분담되어 그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 分擔指導敎授는 분담하고 있는 학생들을 學業·學生活動·學校生活·獎學·就業 등 모든 면에서 責任指導하고 이를 위하여 이들과 수시로 相談하여야 한다. 많은 大學에서 동일한 교수가 분담한 學生들을 卒業時까지 지도하도록 하고 있어서 敎授와 學生과의 關係가 긴밀해지도록 하고 있다.

대학이 大規模化되고 대학교육이 大衆化하게 됨에 따라서 敎授 1人當 學生의 比率이 높아지고 대형 강의실에서 多數의 학생을 대하다 보니 교수와 학생간에 對話의 기회가 적어지고 人格

的 關係가 형성되기 곤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學生指導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의 접촉과 관계를 높이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分擔指導教授制이며 현재 실질적인 학생지도는 學科가 중심이 되어 이 분담지도교수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指導教授는 분담학생들과 자주 만나서 상담하고 그들의 학교생활과 학생활동에 대하여 助言하고 指導하는 한편 獎學生을 선발하고 분담학생의 賞罰이나 각종 추천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한다.

學科 分擔指導教授 이외에 서클 指導教授가 있다. 서클은 대학생들의 自律的 組織으로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學術·취미·理念·宗教 등에 따라서 自治的 課外活動을 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므로 누구를 지도교수로 모실 것인가도 學生들 스스로 정하고 그 教授의 승락을 받는다. 대학에 있어서 학생들의 서클活動은 폭 넓은 교양과 건전한 교제, 自治能力과 奉仕精神·協同心 등의 함양을 위하여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근래 일부 서클은 과격한 意識化教育과 시위 선동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서클 指導教授는 서클의 集會에 참석하여 서클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助言하고 서클이 벌이는 行事を 허가하고 지도하는 責任을 맡게 되었다.

指導教授制度의 問題點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교수에 따라서 學生問題에 대한 理解와 判斷이 다를 수 있고 指導內容과 方向이 다양하여 동일한 학생문제에 대하여도 대학의 일관된 指導對策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學生 개인의 문제에 대한 지도나 學問的 지도는 오히려 개별적으로 다양한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集團의 문제에 대하여는 교수들의 一致된 見解와 指導方法이 요청될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들의 社會問題에 대한 意識과 主張에 대하여 自然科學을 전공하는 교수들 중에는 이들을 체계적·학문적으로 설득하고 지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둘째, 대학과 학과에 따라서는 教授數에 비하여 學生數가 과다하여 分擔指導學生의 合理的 配定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따라서 분담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서클 指導教授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서클 加入傾向이 높기 때문에 대체로 전체 학생의 半數 정도나 서클에 가입하여 서클수도 많고 學生數도 많아서 서클 指導教授가 각 대학에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에 이르러야 하고 많은 교수가 學科學生과 서클學生을 二重으로 지도하여야 하므로 서클指導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학생측에서도 教授의 지도를 단속과 간섭으로 받아들여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특히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념서클의 경우에는 서클의 등록과 활동에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한 현제도하에서 지도교수를 구하기도 어렵고 지도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서 地下서클화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의 自治活動의 폭을 넓혀가는 現政策下에서 指導教授制度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

IV. 學生生活研究所의 役割과 機能

學生生活研究所는 학생문제를 파악·분석하고 學生指導原則과 指導方案을 수립하며 個人相談과 集團指導를 통하여 학생들을 도와 주기 위하여 1962년 서울大學校에 설치된 이후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學生生活研究所에는 研究部와 相談部를 두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不適應과 不滿의 문제, 要求·希望事項을 조사·분석하고 指導對策과 指導方法을 연구하며, 相談活動과 小數集團의 對話의 機會 마련, 教養特講의 개설 등으로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한편 각종 資料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學校生活과 교수들의 學生指導를 지원하는 役割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學生生活研究所의 役割과 機能上 근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첫째, 精神醫學的 心理檢査나 소수의 個人相談에 편중하여 현재 대학의 최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勉學氛圍氣 조성을 위한 활동과 학생들의 意識構造·價値觀·社會問題認識·就業 등에 관한 연구와 지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학생 개개인의 부적응과 불만의 문제가 集團의 問題의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중화된 大學教育下

에서는 다수 학생을 상대로 하는 集團指導活動 특히 社會意識의 지도와 職業報道活動 등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겠고 大學의 學生指導方向과 지도교수의 指導方法을 제시하는 역할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생활연구소는 財政支援과 專門의인 敎職員의 부족 그리고 학생과 교수의 學生生活研究所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째, 大學行政上으로도 학생생활연구소와 他 學生指導機構, 즉 學生處 및 指導敎授 등과 기능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생활연구소는 學問研究機關이라기보다는 學生指導機構 내지는 奉仕機構의 성격이 강하므로 대학 행정상 機能分擔과 相互連結關係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V. 기타 學生指導機構의 機能

위에서 언급한 學生指導를 담당하는 기구 외에도 大學에는 학생지도와 관련된 많은 機構와 委員會가 있다.

學生寄宿舍는 宿食을 함께 하는 團體生活를 통하여 인간관계·규칙적 생활·공동생활의 規範 등을 체득하도록 생활지도를 하는 기관이며, 大學新聞社와 教育放送局은 學內言論活動을 통하여 情報傳達·表現能力·與論形成·學術文藝發表活動 등을 지도하기 위한 기구이고, 修鍊院·修鍊場은 自然 속에서 舍宿하면서 心身을 단련하도록 지도하는 기구이다.

그 밖에 각종 委員會로서는 學生指導委員會·學生善導委員會·讀書指導委員會·大學文化育成委員會·弘報委員會·就業指導委員會·이데올로기批判教育委員會 등등 대학마다 다수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學生指導對策의 수립에서 특수한 분야의 지도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이 다양하며 위원은 敎授들 중에서 專攻과 指導能力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이들 機構와 委員會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VI. 앞으로의 課題

이상에서 大學의 學生指導를 담당하는 機構와 組織을 機能과 관련하여 간단히 살펴보았거니와 우리나라 大學이 안고 있는 현안과제에 비추어 몇 가지 개선·보완하여야 할 점을 요약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學生問題에 대한 本質的 研究과 基本的이고 長期的인 指導方向 및 對策이 수립되어야 하겠고, 이에 따라 學生指導機構간에도 機能分擔과 相互有機的인 連結關係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學生指導分野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學生集團活動의 지도와 學生 個人的 學習·生活·進路의 지도가 그것이다. 각 분야의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치밀한 指導對策을 마련하고 指導機構도 기능적으로 이를 分擔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각종 委員會는 統·廢合하여야 할 것이 많고 기구간의 긴밀한 연계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敎授와 學生간의 對話와 接觸의 기회를 확대하고 존경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획기적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빈번한 學生示威과 강력한 소요방지는 敎授와 學生 모두가 學生指導를 부담으로 느끼게 하고 對話와 理解를 부족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大學에서는 모든 문제를 學問的으로 자유롭게 討論할 수 있어야 하고 반면에 學問的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과 교수와 학생 모두의 노력이 요청된다.

세째, 事後指導보다는 事前指導에 역점이 주어져야 하겠고 학생문제는 대부분 家庭問題에 직결되고 있으므로 學父母 및 社會 各계 各層과 問題解決을 위한 긴밀한 協助體制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과 敎授만으로는 오늘의 學生問題를 해결하고 지도하기에 벅차고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보면 이러한 협조체제를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學生指導問題 解決에 미칠 효과 역시 크리라고 판단된다. *